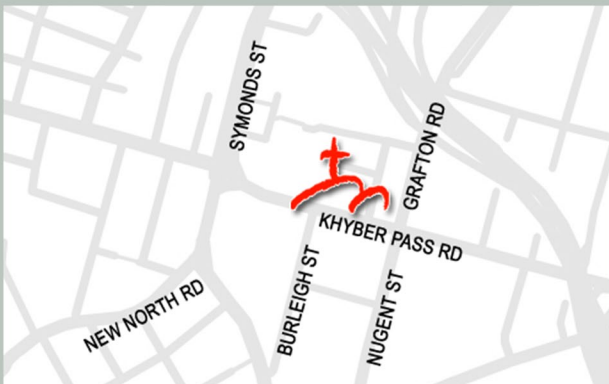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향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9년 9월 8일 2부 예배 후 선출 직분: 안수 집사 3인, 권사 5인  
<1> 헌법에 따른 자격:  
안수집사: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무후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 디모데전서 3:8-10에 해당된 자,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 훈련을 받은 자.  
권사: 세례교인으로 무후 5년 이상 경과한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 훈련을 받은 자.  
<2> 교회 내규에 따른 자격:(1) 모든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자. (2)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 출석한 지 만 5년 이상 된 자. (3) 십일조 생활에 본이 되는 자. (4) 영적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열심인 자.  
<3> 선출 방법: 총 투표수 1/2 이상 찬성 득표자, 무기명 투표, 1차 투표에서 선출된 자가 없을 경우 2차까지만 실시하되 2차 투표는 선출 인원의 두 배수로 합니다.
2. 정독으로 말씀을 읽는 여섯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범위는 레위기 16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3.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 2019년 8월 24일 (토)-25일 오전 10-오후 4시 (주일) 장소: 교회  
주제: 하나님은 나의 중심(로마서 12:2)
4.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5. 오는 28일 수요일 예배는 4남여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 예배 용 드림이 노후되어 전자 드림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8월 교회 사역 일정]**  
25일 (주일) 권사 기도회  
28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4남녀)

INFO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성철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요한복음 4:23-24	인도자
■ 찬송	----- 37장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 279장	다같이
대표기도	-----	이광희A 장로
성경봉독	----- 창세기 1:1	인도자
찬양대찬양	----- 본향을 향하네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 나는 믿습니다	이성철 목사
찬송	----- 79장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 445장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b>수요일예배</b>	오후 7시30분	<b>청년예배</b>	오후 3시 15분
기도	박후임 권사	금주기도	김수희 자매
성경봉독	마가복음 7:14-23	다음주일	이예찬 형제
설교	[겔태도속마음]		
	이태한 목사		
찬송	423장		
주기도	다같이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9월 기도 순서]

8월 25일 (주일) / 김병진 목사  
8월 28일 (수) / 헌신예배  
9월 1일 (주일) / 김철재 집사  
9월 4일 (수) / 이병대 집사

[8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진아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박영선 A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8/18  
21권 33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이번 주는 오를랜드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장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라마단을 마치면 모스크 이웃들은 한국의 명절과 같이 친족들을 모이며 잔치를 하고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돌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한 로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있던 이웃들은 눈물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모스크 이웃은 저(폴)에게 와서 “FFF를 크리스마스에 모스크로 초대할게”라며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이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FFF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회심한 P 형제와 H 형제의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형제들의 플랫폼 메이트 H를 FFF로 인도하였고 지난주에는 H 형제가 “나도 화요모임(제자훈련)에 참여해도 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새롭게 회심한 형제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믿음을 담대히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제3국에서 가족들을 만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걱정한 어머니들이 우울증 때문에 심장에 무리도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시편과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K 형제의 난민 신청은 제3국인 B 국에서도 기각이 되어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D 형제의 난민 신청건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9월)에 있습니다.

“폴, 우리 부모님과 성경을 읽으며 많은 질문들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FFF 예배를 부모님과 참석한 D 형제가 Table 토의 시간에 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웃들이 계속해서 FFF 예배와 모임들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나눠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1. 난민 신청 중인 형제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잘 인내하도록.
2. 새롭게 회심한 지체들이 말씀의 터 위에 잘 세워지도록.

1.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2.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이 선출되도록.
3. 삶의 여러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결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 영적 바이러스를 예방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종류는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 바이러스로 구분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러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의 크기와 염색체가 바뀌며 세포의 증식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세포의 표면에 변이가 생기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바이러스와는 다른 정보의 상징인 컴퓨터도 바이러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이래저래 바이러스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는 온갖 바이러스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성이 있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인간의 관심은 육의 것에 치우쳐 있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심리는 강하지만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나 경계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비하는 예방이나 경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영적 바이러스도 여간해서 우리 신앙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바이러스를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신앙의 예방주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 예방주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적용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 수 있듯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분별하려면 역시 영적인 현미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신앙으로는 영적인 바이러스의 침투를 알 수 없거나 퇴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벰전5:8)라는 말씀처럼 차라리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 라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신앙생활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듯이 영적 바이러스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먹습니다. 또한 몸 된 주의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현미경 신앙으로 영적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태한 목사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